

한국문학의 세계화, 탄탄한 작품이 우선

작가와 출판사, 유통구조 개선 되어야

글_유영난(번역작가)

자국의 문학을 번역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읽히고 싶어 하는 욕구는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국심에 찬 의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다. 문학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작품목록을 만들고,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번역작업을 지원하고, 이웃 일본의 예를 들며 번역만 잘되면 우리도 노벨상을 탈 수 있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제대로 된 번역자들이 부족한 것이 유일한 문제라고 모는 분위기이다.

번역자의 숫자와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파격적인 번역 및 편집 지원책과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나라의 경제적 위치가 올라감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영어가 세계어 노릇을 하면서 영어 하나만 잘하면 뭐든지 잘 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 팽배해 있다. 문학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학은 올림픽이 아니다. 체육 중에도 취약 종목이었던 우리나라의 수영이나 피겨 스케이팅이 세계수준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체육종목조차 장기적 안목의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투자가 필요한데 문학수출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은 특정 민족의 삶이 녹아있을 뿐 아니라 독자에게 언어 자체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예술이다. 전세계의 소설을 영어로 꾸준히 읽으면서 다양한 번역작업을 매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어느 의미에서 번역은 원작을 죽이는 작업이다. 많은 요소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번역과정을 살아남아 생생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작품 자체가 탄탄해야 한다. 우리나라 작품의 수준이 세계적이어서 번역만 잘되면 노벨상도 탈 수 있다는 말들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대체적으로 우리 작품들은 신중한 편집과정을 거치지

않고, 작가들도 너무 손쉽게 써내는 듯 하다. 미국 출판시장에서 책이 한 번 나오기 위해 거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번역자는 작가가 놓치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하는데 앞뒤가 안맞거나, 한국소설의 경우 세계적인 소설의 발달과정에서 한참 뒤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1950년대의 영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지루한 느낌을 준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담아내는 그릇이 시대와 관객의 취향에 맞아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나라 소설의 경우 많은 작품들이 독자의 수준을 낮게 보고 작가가 설명조의 글을 쓰는 일이 흔하다. 긴박감을 주면서 소설만이 줄 수 있는 재미가 대체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설명하지 말고 생생하게 보여줘라”는 문예창작에서 초보적인 상식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작품을 쓴다면 현대 독자는 짜증을 낼 것이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문학작품으로 읽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출판사에서는 전문 편집인을 길러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작가는 “감히 내 글을 만지다니”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문학작품이 번역된 다음에도 출판과 유통이 문제인데, 한국의 번역지원단체들은 뉴욕에 있는 큰 출판사에서 한국작품들이 나올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일단 에이전트가 없이는 큰 출판사에 접근할 수 없고, 큰 출판사일수록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없으면 책을 냈다가도 홍보하지 않고 조용히 죽여버린다. 당장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없는 번역문학의 경우, 작은 출판사라도 견실한 곳과 손을 잡고, 눈에 보이는 행사위주가 아닌 효과적인 지원책을 써야 한다. 번역, 출판 지원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는 한데 중구난방이다. 그것들은 한군데 모아 백화점식이 아닌 집중지원을 하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